

## 노출의 계절 44 사이즈 열풍

(키 155cm, 허리 23인치)

**Trend** 트렌드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성인 사이즈로는 가장 작은 '44 사이즈'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볼과 4~5년 전만 해도 '44 사이즈'는 연예인이나 키·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입는 옷으로 여겨졌으나, 요즘엔 키도 크고 날씬한 여성들이 즐겨 입으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 “55 사이즈 여성도 ‘44’ 주세요”

날씬함 선호속 일부매장 품절

포털사이트엔 안티 카페 등장

### “여성 심리 파고든 상술” 비난

◇'44'를 입는다는 자부심=롯데백화점 광주점 내 80여 개의 여성복 매장 중 20곳에서 '44 사이즈' 옷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백화점 '오브제' 매장의 경우 월 매출의 10%가량을 '44 사이즈'가 차지하고 있다. 매장에 들어오는 '44 사이즈'의 옷은 전체 옷의 15% 미만이지만 판매량은 월 10%에 이른다. 들어오는 상품은 대부분이 판매된다는 얘기가.

장정신(여·40) 매니저는 “'55 사이즈' 여성들도 무리하게 '44 사이즈'를 요구하곤 한다”며 “편한 것보다는 '44 사이즈'를 입는다는 자부심을 더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44'를 반대한다=“44 사이즈” 열풍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는 최근 '그녀(혹은 그)들의 반란'(cafe.daum.net/s-

pickupgirls)이라는 카페가 개설됐다. '77 사이즈'를 입는 김모(여·28)씨는 이곳에 “옷을 사러 갔다오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운영자 정유정(19·미국 유학생)씨는 “뚱뚱한 것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카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개설 한 달도 안돼 회원 수 1천 956명, 하루 방문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섰다.

◇'무늬만 44 사이즈'=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이숙희교수는 “'몸짱 열풍'으로 호리호리한 몸매가 각광을 받으며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44 사이즈도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44 사이즈'의 열풍 자체가 여성의 날씬해지고 싶은 심리를 자극한 상술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44 사이즈'의 옷은 오히려 '55 사이즈'에 가까운데 표기만 '44 사이즈'로 한, '무늬만 44'인 경우가 많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44 사이즈란'?=산업자원부 표준기술원은 1981년 남성복과 여성복 등 41가지의 제품치수를 표준화하면서 여성정장류를 44, 55, 66, 77 등의 사이즈로 기호화했다. 당시 여성의 평균 키와 가슴둘레였던 155cm에 33인치는 '55'로 기호화했다.

'55'를 기준으로 키는 5cm 간격, 가슴둘레는 2인치 간격으로 더한 치수가 66 사이즈, 각각을 뺀 치수가 44 사이즈가 됐다. 2003년 기준에 따르면 '44 사이즈'의 체형은 키 155cm 가슴둘레 28인치, 허리둘레 23인치다.



'44 사이즈'는 마케킹보다 작은 사이즈를 입는 여성이 입을 수 있다. '44 사이즈'의 김순영(여·32)씨가 '55 사이즈'가 스펙 35인치, 허리 25인치, 힙 36인치인 마케킹 옆에 서서 사이즈를 비교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차량 잦은고장 부수적 피해” 제조사 상대 첫 손해청구

쌍용자동차의 렉스턴·무쏘 등을 구입한 운전자와 가족 등 19명은 2일 “쌍용차의 잦은 고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별도 교통비와 렌트비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반이 처음이다.

이들은 “차량 고장으로 수리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일과 교통비, 렌트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비용도 제조사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또 보증수리 기간 중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수리비와 위자료 역시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너무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으로 자동차 유지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회사는 자동차 구입 당시 금액과 함께 원고들이 본 피해에 대해 모두 1억2천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동료선원 물고문 숨지게

30대 구속영장 목포해양경찰은 2일 동료선원을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성모(34·목포시 죽곡동)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우잡이 연안 자망어선 '제3 세종호'(9.7t) 선원인 성씨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김모(31·영광군 낙월면)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후 물을 부어 질식사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김씨의 손발을 묶은 뒤 동등이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왕 게임’ 하며 가출 여중생 술먹여 성폭행한 고교생 2명 입건

장성경찰청은 2일 가출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17) 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군 등은 지난달 16일 밤 나주시 송월동 인근 저수지에서 숙청 ‘왕 게임’(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의 지사에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따르는 놀이)을 하면서 집을 나온 여중생 S양(13·중2)에게 술을 먹인 뒤 섹스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또 S양 등 여중생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이모(40·광주시 북구 중흥동)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kwangju.co.kr

### 광주지검이 밝힌 무고사범 유형

채무 회피형 부도나자 어음위조 허위고소

감정 보복형 연인과 갈등에 성폭행당했다

광주지검감찰청은 올해 상반기 무고 사범 58명과 위증사범 17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무고 사범 유형을 분석해 봤다. ◇채무 회피·면탈형=지난 2001년부터 9천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한 유모(48)씨. 그는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어음이 위조됐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음이 위조됐다고 신고하면 별도의 사전신고 담보금 없이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신용불량자인 친구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모

(여·31)씨. 그녀는 친구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물게 되자, 친구가 자신의 명의를 동용해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허위신고했다. ◇감정 보복형=다방에서 근무하는 박모(여·25)씨는 다방업주와 사귀며 동거를 했다. 하지만 연인과 싸움

을 자주 하고, 빌린 카드대금도 갚지 않자 '복수'의 방법으로 고소를 택했다. 박씨는 “나를 강제로 다방에 팔아넘기고 성폭행한 다음 내 명의를 동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며 고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합의를 위한 맞고소형=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29)씨는 “나도 맞았다”며 진단서를 첨부해 상대방을 맞고소, 합의를 받아냈다.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쉽게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한 것이다.

합의를 위한 맞고소형=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29)씨는 “나도 맞았다”며 진단서를 첨부해 상대방을 맞고소, 합의를 받아냈다.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쉽게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외 ▲민사소송의 승소를 위한 '민사사건 자료수집형' ▲자신이 저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기 위한 '책임 전가형' 등의 무고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 156조는 '무고 사범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897) 김동두



**연예자 동리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디 중 353명 363세디  
문의 (062)366-4220

### 새벽 6곳 잇단 방화 4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은 2일 새벽 2시~오전 7시까지 북구 지역 주택과 차량 6곳에 걸쳐 불을 지른 방화 전과 3범 김모(4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승배기자 lsb54@

### “외상 안준다” 고압선 위 2시간 농성

○~30대 노무자가 가로수를 타고 15m 높이 전선주로 올라가 2시간 동안 ‘곡예’를 펼쳐 인근 주택가 일대가 한바탕 소동.

○~2일 새벽 1시50분께 목포시 죽곡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정모(38·노동·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씨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며 고압선 위로 올라가 전선을 손으로 잡고 유격훈련을 하듯 왔다 갔다 해, 감전을 우려한 한전이 인근 300여 가구에 40여 분간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정씨는 작은 전선이 두꺼운 피복으로 덮힌 ‘가공전선’이어서 다행히 감전되지 않았고, 경찰은 한전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정씨를 귀가 조치.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Do you think it is Possible?

**서경빌딩 임대**

100평 - 1000평  
150평 - 1000평  
200평 - 1000평

100평 - 1000평  
150평 - 1000평  
200평 - 1000평

100평 - 1000평  
150평 - 1000평  
200평 - 1000평

100평 - 1000평  
150평 - 1000평  
200평 - 1000평

100평 - 1000평  
150평 - 1000평  
200평 - 1000평